

캡틴 손흥민, '철옹성' 아자디 골문 열었다

박지성 이후 12년 만에...A매치 2경기 연속골
벤투호, 뼈아픈 동점골 허용 '아자디 컷승' 불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이란 원정에서 손흥민(토트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아쉽게 비겼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치른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북병 시리아를 상대로 극적인 결승골로 한국 축구를 위기에서 구했던 손흥민은 '원정팀의 지옥'으로 불리는 아자디 스타디움 골대에 12년 만에 한국의 득점을 남겼다. 최근 2년 동안 대표팀에서 '필드골 가뭄'에 시달렸던 손흥민은 지난 7일 열린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데 이어 이날은 난적 이란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해 이번 소집 2경기 모두 골을 기록했다.

연도	날짜	상대국	결과
21년	9월 2일	*이라크전	0:0 무
	9월 7일	*레바논전	1:0 승
	10월 7일	*시리아전	2:1 승
	10월 12일	이란전	1:1 무
	11월 11일	*아랍에미리트전	
	11월 16일	이라크전	
22년	1월 27일	레바논전	
	2월 1일	시리아전	
	3월 24일	*이란전	
	3월 29일	아랍에미리트전	

*한국 홈 경기
카타르 월드컵 22년 11월 21일 ~ 12월 18일
자료: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 연합뉴스

특히 손흥민의 골은 한국 축구에 난공불락의 원정지로 여겨진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터져 의미가 더 컸다. 한국은 이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아자디 스타디움에서는 최근 3연패를 당하는 등 유독 악한 모습을 보였다. 득점에 당연히 어려웠다. 1977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2-2 무승부)에서 이영무가 두 골을 넣은 뒤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A매치에서 한국은 30년 넘게 골 맛을 보지 못했다. 이란과 통산 상대 전적은 9승 10무 13패가 됐다. /연합뉴스



12일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A조 한국과 이란 경기에서 손흥민이 후반 3분 선제골을 터뜨린 뒤 황의조의 등에 업고 세리머니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자신감 얻었다, 홈에선 이긴다”

손흥민 “승리 못해 죄송...선수들 자랑스러워”

‘원정팀의 지옥’으로 불리는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골 맛을 본 축구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29·토트넘)은 난적 이란을 상대하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다가올 홈 경기에선 이란을 잡겠다고 다짐했다. 손흥민은 12일 원정경기를 마치고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승리를 거두지 못해 주장은 죄송하다. 늦은 시간까지 진심으로 응원해주신 것이 느껴졌다”며 “기대에 부응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승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흥민은 이날 0-0으로 맞선 후반 3분 선제골을 터뜨려 2009년 박지성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로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득점한 한국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후반 31분 알리레자 자한바흐시에 게 동점 골을 내줘 1-1로 비기며 승리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원정팀이 유독 힘들어하는 아자디에서 의미 있는 승점 1을 끌어냈다. 손흥민은 “이란은 홈에서 상당히 강한 팀이라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다. 끝까지 승리를 지키지 못한 건 책임감을 느끼지만, 위기 뒤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노력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이 많이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오늘 경기로 자신감을 얻었

다”며 내년 3월 이란과의 홈 경기를 기대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로 데뷔한 이후 이번까지 이란과의 7차례 A매치에 나섰는데, 승리를 맞은 적이 없다. 득점도 이번 경기가 처음이었다. 손흥민은 “우리가 이란 원정이 힘들듯, 이란도 원정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거다. 이란과의 홈 경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는데, 만약 많은 관중 앞에서 홈 경기를 한다면 승리로 보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10월 최종예선 2연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것도 손흥민에겐 소극이다. 국가대표팀에만 오면 소속팀에서와 같은 위력을 보이지 못한다는 평가를 어느 정도 썼어냈다. 손흥민은 “선수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도와준다. 문전에서 유희열어하는 아자디에서 의미 있는 승점 1을 끌어냈다”며 “오늘 골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매우 좋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아직 최종예선은 끝나지 않았고, 크게 보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팬들의 응원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 단체전 2연패 ‘쾌거’



13일 열린 여고부 소프트테니스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순천여고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수영 김지형, 대회 2관왕
전남복싱 임형욱·박성현 ‘금’



“전국 최강”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순천여고는 13일 경북 문경국제스포츠크닉장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무학여고(서울)를 3대1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2019년 100회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개인복싱, 개인단식을 석권한 순천여고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단체전 2연패를 달성했다. 순천여고는 지난 4월 제57회 한국중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연맹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단체전에



13일 열린 남고부 소프트테니스 단체전 결승에서 인천고에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건 동신고 선수단. <광주시체육회 제공>

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남고부에서는 광주 대표로 출전한 동신고가 결승에서 인천고(인천)에 2대3으로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6일째인 13일 광주선수단은 수영에서 값진 금메달을 수확했다. 여고부 평영 50m에 출전한 김지형(광주체고 1)이 32초27의 자신의 최고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 패드를 찍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9일 열린 여고부 평영 100m에서 1분10초74의 개인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지형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전남은 복싱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다. 라이트헤비급의 임형욱(전남기술과 학교)과 헤비급의 박성현(전남기술과 학교)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 복싱 부활을 알렸다. /박희중 기자

AI 페퍼스 “팬들과 적극 소통”

공식 홈페이지·SNS 채널 오픈 기념 이벤트 풍성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배구단이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오픈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AI페퍼스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데 이어 지난 8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AI 페퍼스 홈페이지는 포지션별 선수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업로드하고 SNS 채널과도 연동성을 갖췄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 경기 관전포인트를 소개하며 승률을 예측하는 ‘AI 페퍼스 프리뷰’와 신생팀의 창단준비과정을 다룬 디지털 다큐 ‘위 아 페퍼스’(We are PEPPERS)’가 게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구단과 선수들의 생생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AI 페퍼스는 홈페이지 및 SNS 채널 오픈을 기념하며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방법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채널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당첨자는 22일 AI 페퍼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스



타그램과 네이버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AI페퍼스 배구단 관계자는 “AI 페퍼스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며 “구단과 선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참신한 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I페퍼스는 페퍼저축은행이 광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여자프로배구 제7구단이다. 오는 19일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에서 KGC인삼공사를 상대로 2021-2022 시즌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박희중 기자

‘과학을 더한 스포츠’...체전 현장 빛내다

광주스포츠과학연구소·전남스포츠과학센터, 현장 밀착 지원 눈길

광주시체육회 소속 스포츠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전남도체육회 소속 전남스포츠과학센터(이하 센터)가 경북 구미 일원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 대한 스포츠 과학 지원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과학을 더한 스포츠 열정과 든든한 조력 덕분에 광주·전남 선수단은 연일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연구소는 이번 대회에 박사급 연구원, 컨디셔닝센터 연구원 등 9명

을 파견해 종목별·개인별 맞춤 스포츠과학 컨디셔닝과 최신 첨단 회복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경기 전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을 위한 준비 및 정리운동, 스포츠테이핑, 근육피로회복, 스포츠영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경기 후에는 냉요법 및 스포츠근막이완요법 등을 통한 빠른 회복을 돕는다. (사진) 특히 연구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훈련시간이 부족한 선수들에게 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140여편의 근

력, 근과워, 근지구력 등 경기력 향상 트레이닝과 영양섭취 영상 및 부위별 부상회복을 위한 컨디셔닝 방법과 도핑방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제공했다. 전남도체육회도 김태완 센터장을 비롯한 4명의 직원이 현장 지원에 나서 경기 전·후 산소처치를 통해서 선수들이 경기 출전 직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빠른 회복을 위한 각종 스포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테이핑, 마사지 등을 통해 선수들의



근육상태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는 광주·전남선수단 승리의 현장에 묵묵히 함께 한 이들의 굵은 땀방울이 자랑이다. /박희중 기자

‘고의 충돌 의혹’ 심석희, 대한민국체육상 ‘보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고의로 충돌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4·서울시청)가 올해 대한민국체육상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애초 심석희에게 줄 예정이던 체육상 경기 부문 시상을 보류했다”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현재 심석희의 고의 충돌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간 만큼 금년 시상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의충돌 의혹은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측이 법정에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자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격리 조치하고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로 했다. 심석희의 고의 충돌 의혹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한편,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은 단체부 주관으로 15일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